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The Prospects on More-than-human Geographies in South Korea

황진태**

1. 기획의 배경: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론의 한계

최근 십여 년간 서구 지리학계는 인류가 직면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출현을 포함하여 글로벌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기후변화, 자연재난, 전염병 등의 다양한 인문-자연 사건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중심주의에 바탕한 ‘인문(人文)’ 지리학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비인간(nonhuman)의 존재와 실천 및 그들이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공간과사회》 특집호는 동물, 식물, 사물과 같은 비인간들은 어떻게 인간, 사회,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지를 밝히기 위하여 발전해온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탐색하고 전망할 장을 마련하였다.

* 이 글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dchjt@naver.com)

사실 특집호를 기획하기까지 객원편집인을 맡은 필자는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대한 입장이 급격히 바뀌었다. 2016년 국내에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명애의 논문(Choi, 2016)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Eder, 1996)과 자연의 생산론(Smith, 2017)에 대한 ‘부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학계도 이러한 접근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한국의 정치생태학자로서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첫째, 서구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가 주로 인간과 동물(대표적으로 개, 고양이, 코끼리 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동물지리(animal geographies)에 치중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정치화된(politicized)’ 자연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비(非)정치적인 분석틀로 보았고, 둘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론이 주목하는 (2차) 자연의 생산 및 구성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의 역할을 살피는 연구와 이를 주도할 연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의 ‘우정’을 탐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었다.

이처럼 국내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를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필자가 이 분야를 특집호로 기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필자를 포함한 일련의 비판적 공간연구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압축적 근대화/도시화’(박배균·황진태, 2017; 장세훈, 2017; 이상헌 외, 2017; Doucette and Park, 2017)의 과정을 사회세력들 간의 정치적 갈등, 경합, 타협이라는 인간들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면서—인간들의 활동 밖에 혹은 이미 범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여—비인간이나 자연으로부터의 창발적 힘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이었다.

보다 개인 차원의 연구로 들어가면, 필자의 정치생태학 연구의 주요 주제는 물 정치(hydropolitics)이다. 박정희 정권이 조국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제, 자유제였던 물을 국유제, 경제재로 전환하는 물질적, 담론적, 제도적 실천들을 살피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살

리기 사업에서도 국가와 자본 주도의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이 지속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Hwang, 2015; Hwang, 2017; Hwang et al., 2017). 이상의 물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데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론 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이후,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 출현한 ‘비인간’ 큰빛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와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저항의 정치를 설명하기에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론이 갖고 있는 분석의 칼날은 무디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했던 2017년, 뉴질랜드 북섬의 황거누이(Whanganui) 강이 대법원 판결에서 인간처럼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을 인정받고(Charpleix, 2018), 비록 대법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인도의 갠지스 강은 고등법원까지 법인격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비인간’ 강이 인간 사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존하는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문제들을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설명력과 대안적 시각을 끄집어 낼 수 있을 지를 주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7년 8월 한국공간환경학회 방중세미나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 논문 읽기 세미나를 열었고, 세미나를 통하여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여러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특집호를 기획하게 되었다.

2. “More than human” 번역의 곤혹스러움: ‘인간 vs. 비인간’ 그리고 ‘인간 vs. 인간’

특집호의 본래 주제명은 ‘비인간 지리의 탐색과 전망’이었다. More-than-human geographies의 번역어를 비인간 지리로 한 것인데, 최명애(Choi, 2016)의 논문에서 사용한 번역어를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비

인간 지리로의 번역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는 마치 비인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가령, 필자가 지난해 겨울 한국도시지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리슈만 편모충, 모래파리 그리고 코스모폴리틱스: 비인간지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의 유럽」)에서도 비인간 지리를 사용했는데, 동료 학자들은 이 번역어는 마치 비인간만을 강조하고,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간과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새로운 번역어를 주문했었다.

이번 특집호에 참여한 최명애도 그간 학계로부터 유사한 반응을 들었는지, 자신이 투고한 초고에서 “인간 외 비인간 존재를 적극 고려하는 지향을 담은 개념인 *more-than-human*은 번역하기 까다로운 용어”라면서 “번역 없이 *more-than-human*”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수정본에서는 심사자들의 권유에 따라서, “인간 외 비인간 존재로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동물지리학의 취지를 감안해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번역어로 제시한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번역어가 갖는 어감상의 어색함이 남아있지만, 관련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인 *nonhuman*도 비인간으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앞서 비인간지리라는 번역어가 야기하는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more-than-human geographies*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으로, *nonhuman*은 비인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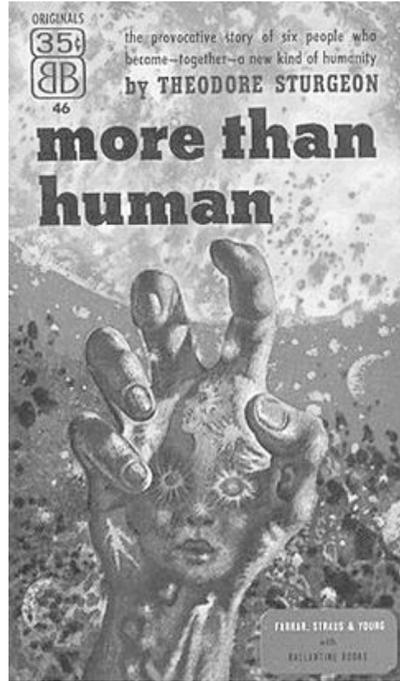
더불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인간’으로 묶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명한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이 “내게는 비인간이라는 용어도 몹시 거슬린다. 어떤 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백만이나 되는 종들을 하나로 뭉뚱그리기 때문이다”(de Waal, 2017: 49)고 밝혔듯이, 자칫,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비인간’이라는 이름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올리면서 과도한 일반화의 담론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중심적인 사회과학이 만연한 오늘날에 ‘비인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으로써 인간중심적 지리학의 한계를 반성하고, 사회와 공간에 퍼져있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를 포착함으로써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nonhuman으로서 비인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상의 고민을 바탕으로 이 특집호의 주제명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앞서 논한 more than human 번역의 곤혹스러움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 내부, 즉, ‘인간 vs. 인간’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서구 사회에서 more than

<그림 1> 시어도어 스테전(Theodore Sturgeon)의 *More than human*(1953) 표지



human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예는 시어도어 스테전(Theodore Sturgeon)의 공상 과학 소설의 제목인 *More than human*(1953년 작)이다(<그림 1>). 이 소설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가령,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흑인 소녀인 주인공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능력이나 순간이동능력을 갖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넘어선(more than human)’ 신인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필자가 이 소설에서 주목한 지점은 신인류가 되기 이전의 주인공들은 ‘인간이 아니었다(less than human)’라는 점이다. 여기서 ‘인간’의 범주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육체적 장애가 없고, 백인이자 남성이 해당된다. 인간 사회 내부에 인종적, 경제적, 육체적, 성별적 차별이 유지되고, 이러한 차별구조에 동의하는 인간들은 ‘인간

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모순어법이 성립된다. 결국, 주인공들은 ‘인간보다 못한 인간을 넘어선’ 신인류가 되고자 한 것이다.

앞서 필자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실천적 목적이 ‘인간과 비인간 간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를 포착함으로써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연구하려는 인간들의 또 다른 목적은 인간이 행성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비인간을 보다 세련되고, 섬세하게 착취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나아가, 비인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움으로써 인간 사회 내부에서 인간들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 불균등한 상황이 은폐될 수도 있다. 동물지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크리스 파일로(Chris Philo)는 현재 진행 중인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윤리에 대한 낙관주의가 과도한 반면에, 이러한 낙관주의를 막는 요인들, 즉, “less-than-human geographies”의 측면은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Philo, 2017).

이처럼 more-than-human은 ‘인간 vs. 비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간 vs. 인간’ 간에 발생하는 공간적 불평등, 불균등 과정이 포함된 복잡하고 다층화된 구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곤혹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는 인간 ‘너머’의 존재들을 향한 외향적 접근뿐만 아니라—당장 답을 구하는 것이 요원해 보일지라도—‘모순’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의 윤리적, 정치경제적 물음들에 답을 구하려는 내향적 접근도 수반되어야 한다.

3.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선에서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문제들을 바라보기

이 특집호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선에서 공간의 정치경제학 문제들을 살핀 네 편의 논문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문인 최명애(2017)

는 서구 동물지리학 연구의 주요 논의와 쟁점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동물지리학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파악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동물 관계’를 통하여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인문지리학의 하위분야로 볼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한다.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론, 관계적 접근, 생명정치적 접근 등의 현대 인문지리학 이론들이 교차되는 ‘새로운’ 동물지리학을 좇게 될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인문지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각자 나름의 동물지리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녀는 서구 동물지리학계에서 덜 연구되었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특성(가령,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물지리학 연구가 서구학계를 향하여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두 번째 논문인 김준수(2017)는 앞서 최명애가 언급한 동아시아적 특수성과 동물지리학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그는 최근 동아시아 도시공간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선행 연구가 도시공간과 비인간의 물질성 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안적으로 정치생태학 분석을 제안한다. 그는 198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에 ‘자연과 평화의 표상’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되었던 도시 비둘기가 오늘날에는 ‘질병과 오염, 두려움의 표상’으로 변화하는 물질적, 담론적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한국의 발전주의 연구에서 덜 다루어졌던 정치생태학적 독해를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계도시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같은 전지구적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이 ‘글로벌’한 요인뿐만 아니라 개별 ‘로컬’에서의 경로의존적인 요인들과의 접합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논문인 김지혜(2017)는 적조현상이 어떻게 관리의 대상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적조를 발생시키는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하여 증식되면서 바다 생태계의 1차 생산자 역할을 담당한다.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가득한 미세조류가 수적으로 많아지면서 가시화된 것이 적조현상이다. 그녀는 한국에서 1990년대 가두리 양식 산업화와 육지에서의 산업화로 빚어진 오폐수로 인하여 연안에 적조현상이 증가하게 되었고, 적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자와 양식업 종사자, 과학자들이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활동하는 육지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자연’으로 간주되었던 바다가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간이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적조현상의 대표자로서 간주된 비인간 *Margalefidinium polykrikoides*를 바다에서 실험실의 공간으로 옮겨 실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비인간의 행위성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 다룬 *M. polykrikoides*에 대한 분석 방법은 앞서 소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비인간 큰빛이끼벌레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선화(2017)는 중국 내몽골 초원에서 사막화 방지와 목축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시행된 초원에 닭을 방목하는 시험 사업을 통하여 동물, 목축민, 초원, 과학기술 간의 상호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특정한 ‘세계상(cosmogram)’의 출현에 주목한다. 그녀는 기존에 소, 양, 말을 방목하던 중국 북방 내몽골 초원 생태계에 중국 남쪽에서 서식하던 닭이 이동하고서 형성되는 ‘초원을 나는 닭이 만든 세계상’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비인간들의 행위성이 빚어내는 여러 상황들(가령, 품종에 따른 초원에서의 닭의 성장률 차이)과 초원과 실험실에서 시행된 실험들(닭이 초원에 끼치는 영향 및 지구온난화 방지효과등)이 연루되는 지를 포착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언급된 실험실의 역할은 앞서 김지혜의 실험실 분석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김지혜의 미세조류 연구와 함께 식물과 과학기술, 실험실과 같은 동물 이외의 다양한 비인간들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점은 동물지

리에 치중한 인간 너머 지리학 연구의 스펙트럼을 보다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문제의식이 국내 학계에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인문학자들은 ‘포스트휴먼’ 개념을 중심으로 휴머니즘은 보편적 범주이기 보다는 근대주의의 역사적 산물로 보면서, 소위, ‘GNR(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 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에 따른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주목했다(이화인문과학원, 2013; 김재희, 2014; 최진석, 2015).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인문학(人文學)’답게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변(思辨)에 방점을 두고, 사례 연구는 오시이 마모루(尾井守)의 <공각기동대>(1995년 작)와 같은 대중문화분석에 머물면서 인간 ‘너머’의 비인간, 자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연구로 뻗어나가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을 배경으로 한 사회과학자들이 비인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국지적, 산발적으로 시도하면서 경험연구의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전의령, 2017; 이종찬, 2015; 남종영, 2017). 이번 특집호가 기획된 것은 앞서 시도된 인문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노력과 무관치 않다. 모쪼록, 이 특집호가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도시계획, 철학을 포함한 공간과 사회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비인간에 본격적으로 주목할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재희. 2014.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권, 215~242쪽.
- 김준수. 2017.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공간과사회》, 28권 1호, 54~99쪽.
- 김지혜. 2017. 『한국의 양식 산업 속 적조와 인간의 관계: 작은 것들의 카리스마, 적조』. 《공간과사회》, 28권 1호, 101~149쪽.
- 남중영. 2017.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한겨레출판사.
- 박배균·황진태.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 개발의 탄생』. 동녘.
- 드 발, 프란스(F. de Waal). 2017.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이충호 옮김. 세종서적.
- 스미스, 닐(N. Smith). 2017.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최병두·이영아·최영래 옮김. 한울.
- 이상현·김은혜·황진태·박배균. 2017. 『위험도시를 살다: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 경관』. 알트.
- 이선화. 2017. 『초원과 닭의 세계상: 중국 북방 초원 사막화 방지와 생태 실험』. 《공간과사회》, 28권 1호, 150~193쪽.
- 이중찬. 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본 길고양이 증성화 사업(TNR)과 공존의 정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인문과학원. 2013.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장세훈. 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남북한 도시화의 비교와 전망』. 알트.
- 전의령. 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3호, 133~163쪽.
- 최명애. 2017.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사회》, 28권 1호, 16~54쪽.
- 최진석. 2015. 『휴머니즘의 경계를 넘어서: 근대 인간학의 종언과 인간의 새로운 변형』. 《비교문화연구》, 41권, 381~413쪽.
- Charpleix, L. 2018. “The Whanganui River as Te Awa Tupua: Place based law in a legally pluralistic societ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84, No. 1, pp. 19~30.
- Choi, M. 2016.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51, No. 5, pp. 613~632.
- Doucette, J. and B. G Park. 2017.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Geopolitical economies, spaces of exception, and networks of expertise.” *Critical Sociology*, <https://doi.org/10.1177/0896920517719488>
- Eder, K. 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Sage Publications.

- Hwang, J. T.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47, No. 9, pp. 1926~1943.
- Hwang, J. T. 2017. “Changing South Korean water polic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s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7, No. 2, pp. 225~246.
- Hwang, J. T., S. H. Lee. and D. Müller-Mahn. 2017. “Multi-scalar practices of the Korean state in global climate politics: The cas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tipode*, Vol. 49, No. 3, pp. 657~676.
- Philo, C. 2017. “Less-than-human geographies.” *Political Geography*, Vol. 60, pp. 256~258.
- Sturgeon, T. 1953. *More than human*. Ballantine Books.